



즉시 배포용: 2019년 9월 16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**주지사 록랜드 카운티의 나이엑 스타벅스 욕실 문에 새겨진 만자를 조사하기 위해 주 경찰 증오 범죄 태스크 포스(**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**)에  
지시

"최근 록랜드 카운티의 나이엑 스타벅스 욕실 문에 두 개의 만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뉴욕은 그런 혐오스러운 상징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. 이 상징은 분열이 뿌리내리고 위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국가의 정치 중심부를 위협해 온 증오라는 암의 일부입니다. 저는 주 경찰 증오 범죄 태스크포스(**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**)에서 지방 당국의 수사를 지원해 이 사건의 책임자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처벌을 받도록 도울 것을 지시했습니다. 반유대주의와 증오의 모든 형태는 포용, 다양성, 수용이라는 뉴욕의 가치와 모순됩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디서 언제든지 볼 때마다 비겁한 증오의 행위를 계속해서 규탄할 것입니다."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